

# 순천 도심에 차없는 거리 운영... ‘해방로드’ 6월 첫 선

차가 사라진 도심 도로에 문화 콘텐츠가 가득

6월 7~8일 원도심 ‘시민로’ 첫 해방로드 조성

순천시가 오는 6월부터 원도심 시민로를 시작으로 ‘주말의 광장’을 운영한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주말의 광장’은 차가 다니는 도로를 사람들이 모여들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도심 해방 로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도심 속으로 유입하기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핵심사업으로 순천을 대표할 혁신적 문화콘텐츠가 될 전망이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번 원도심, 연향동 패션의 거리, 해룡면 생태회랑 등 권역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팔마 문화제, 순천푸드엔아트페스티벌 등 시의 주요 행사와 연계해 추진된다. 첫 ‘주말의 광장’은 원도심 시민로에서 ‘원즈 순천’과 연계해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도심 속 낭만 캠핑, 친환경 보부상마켓, 다양한 거리 퍼포먼스, 유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캐릭터 거리 조성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시민로를 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행사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세대 간 공감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MZ세대까지 문화가 일상이 되는 주말 콘

텐츠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명칭 공모...내달 21일 마감

역삼각형 철제 구조물...일곱 번 회전하며 올라가는 독창적인 디자인

광양시가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에 나섰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와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조성 중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역삼각형 철제 구조물로, 삼각형 경사로를 따라 정상까지 일곱 번 회전하며 올라가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이는 ‘빛과 철의 도시’ 광양이 지닌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조형물이 들어서는 구봉산은 과거 봉수대가

위치했던 역사적 장소로, 광양제철소와 이순신대교, 순천, 여수, 남해 등 남해안권이 360°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전망을 자랑하며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6월21일까지 광양시청 홈페이지와 공모전 전문 플랫폼 ‘썬유’, ‘썬굿’, 또는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 가능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시는 대상지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고 조

형물의 의미와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직관적이고 강렬한 인상의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작 외에도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해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4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시는 선정된 명칭에 대해 네이밍과 로고를 포함한 상표권 일체를 등록하고, 지속적인 노출과 활용을 통해 조형물의 정체성과 상표 가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빛과 철의 도시 광양을 상징하는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시와 포스코의 영원한 상생과 협력을 기념하는 랜드마크로 자



광양시와 포스코가 추진 중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디자인의 선정작 ‘영원의 봉수대’ (사진=광양시 제공)

리메김할 것”이라며 “명칭 공모는 시민과 국민이 함께 조형물의 의미를 완성해 가는 소중한 과정인 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제적 명칭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여수시, 거북선 축제장서 현장 간부회의 개최

여수시는 정기명 시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59회 여수거북선축제 현장을 찾아 마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국·소·단장 등 30여 명과 이순신광장에서 현장 회의를 열어 거북선 축제 진행 계획과 안전 대책을 보고받고 무대, 시설물 등을 확인했다.

정 시장은 “가정의 달 연휴를 맞이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 진행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주변 교통 통제와 인파 분산 등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가 예보된 날에는 빠른 판단으로 우천 시 대책을 시행하고, 행사 후에는 개선 사항과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내년 축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로 59회째를 맞이한 ‘여수거북선축제’는 전라좌수영의 호국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3~5일 이순신광장 인근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행사장을 이순신광장으로 일원화해 통제영길놀이 구간을 서교동 로터리~교동사거리~중앙동 로터리로 변경했으며, 가장물 행렬 위주의 구성도 스토리형 퍼포먼스로 변화를 줬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순신광장 내에는 음식 부스를 운영하지 않으며, 인근에 위치한 남만포차에서는 10% 할인 행사를, 진남상가에서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토크 이벤트를 제공한다.

동부취재본부

## 고흥군, ‘솔로엔딩, 설렘 in 고흥’ 참여자 모집

고흥군은 미혼남녀 청춘 만남 프로그램 ‘솔로엔딩, 설렘 in 고흥’에 참여를 희망하는 남녀 40명을 5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솔로엔딩, 설렘 in 고흥’은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럽고 건전한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모집 대상은 27세 이상 40세 이하 직장인 및 농·수·축산업 종사자, 사업장을 가진 미혼 남녀로 남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여자는 주소지 제한이 없다.

이번 행사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채로운 만남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7수로 나누어 각 기수당 남·여 각 10명씩 모집해 1박 2일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1기 <나는, solo>는 고흥 선밸리리조트에서 6월 둘째 주 주말에, 2기<나는, 절로>는 능가사에서 6월 넷째 주 주말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팀 빌딩 게임, 연애 특강, 랜덤 데이트, 청춘 파티/스님과 차담, 바다 명상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친밀한 소통을 통해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보성군은 5일 오후엔 일림산 일원에서 열린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가 역대 최대인 방문객 5만여 명이 몰리며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사진=보성군 제공)

## ‘보성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역대 최대 5만명 참여

산 전체 150ha 뒤덮은 연분홍 철쭉

보성군은 5일 오후엔 일림산 일원에서 열린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가 역대 최대인 방문객 5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린 행사는 철쭉 개화 시기와 맞물려 전국 산촌객들이 대거 몰렸다.

해발 667m의 일림산은 호남 정맥의 끝자락이자 남해를 조망할 수 있는 명산으로 꼽힌다. 산 전체 150ha를 뒤덮은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루며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유명하다.

전날 열린 산신제례 행사는 일림산 정상에서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축제의 가치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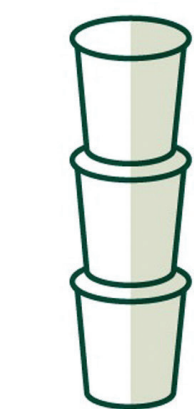
행사장 입구에는 철쭉 포토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목공 놀이 체험, 편백나무 자르기, 차나무 화분 만들기, 보성 특산물 판매장 등이 운영됐다.

손석의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추진위원장은 “올해는 기후가 따뜻하고 생육 조건이 좋아 철쭉이 유독 선명하고 풍성하게 피어올랐다. 앞으로도 국내 대표 봄꽃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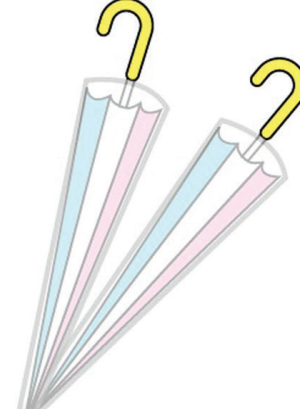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